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살펴본 윌리엄 퍼킨스와 데이비드 딕슨의 언약신학의 특징

류재권

(성북교회, 부목사, 조직신학)

- I. 들어가는 말: 배경 연구
- II. 윌리엄 퍼킨스와 데이비드 딕슨의 언약신학의 특징
- III. 나가는 말

[초록]

본 논문은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윌리엄 퍼킨스와 데이비드 디슨의 언약신학의 특징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로, 본 논문은 초대교회에서부터 퍼킨스와 디슨이 활동한 시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형성사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개혁주의 언약신학이 퍼킨스와 디슨의 시기에 이르러서 보다 구체화되었음이 밝혀졌다. 환언하면,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형성사를 통해 퍼킨스와 디슨의 언약신학을 연구할 당위성을 증명된 것이다. 둘째로, 앞선 두 명의 신학자들의 언약신학의 특징에는 구속협약, 기독교론적 체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구속협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의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과 방식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동기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의 작정 그 자체로서의 언약을 의미한다. 기독교론적 체계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 즉, 두 본성(신성, 인성)의 연합 안에서 삼중직(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순종(능동적, 수동적)을 드러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을 신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의를 전가하여 신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기존의 칼빈 중심의 연구들을 넘어서 퍼킨스와 디슨의 언약신학의 특징들을 논함을 통해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풍성함을 보여주었다.

키워드: 언약신학, 삼위일체, 작정, 구속협약, 기독교론적 체계, 그리스도와의 연합

논문투고일 2020.07.31. / 심사완료일 2020.08.27. / 게재확정일 2020.09.03.

1. 들어가는 말: 배경 연구

일반적으로 개혁신주의 신학은 언약신학으로 정의되는데, 이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¹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개혁신주의 언약신학의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² 그런데, 그동안 언약신학을 논함에 있어서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에게 다소 의존하는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³ 그러나 개혁신주의 언약신학은 칼빈 이전부터 그 기원이 발견되고, 칼빈 이후의 후계자들에게서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⁴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개혁신주의 언약신학은 초대교회 시기로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 교부들은 대체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그리스도

-
- 1 김재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언약사상,” 『한국개혁신학』, 40 (2013), 40-41; 문병호, “개혁신주의란 무엇인가?: 신학과 신앙의 요체,” 『개혁논총』, 27 (2013), 70, 74; 이상용, 『박형통신학과 개혁신학 탐구』(서울: 솔로몬, 2019), 313;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개혁논총』, 26 (2013), 298-299; David Vandrunen, *Divine Covenants and Moral Order: A Biblical Theology of Natural Law* (Grand Rapids: Eerdmans, 2014), 1; Michael Horton, *Introducing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s, 2009), 11; Andrew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a Study in the Reformed Tradition to the Westminster Assembly*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2; John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Wheaton: Crossway, 2014), 125; Cornelis Venema, *Christ and Covenant Theology: Essays on Election, Republication, and the Covenants* (Phillipsburg: P&R Publishing, 2017), xxi.
 - 2 Richard Muller, *After Calvi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Tradition*, 한병수 역, 『칼빈 이후 개혁신학』(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40-41;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1; 안상혁, 『언약신학 쟁점으로 읽는다』(수원: 영음사, 2016), 27-29.
 - 3 Muller, 『칼빈 이후 개혁신학』, 434-435; Peter Lillback, *The Binding of God*, 원종천 역, 『칼빈의 언약사상』(서울: CLC, 2009), 189-476; 문병호, “개혁신주의란 무엇인가?: 신학과 신앙의 요체,” 61-93; 문정식, “존 칼빈과 윌리엄 퍼킨스의 언약사상 - 그 연속과 발전,” (철학박사학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4);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297-331; 한병수, “언약의 통일성: 칼빈과 러더포드 중심으로,” 『개혁논총』, 31 (2014), 79-121.
 - 4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128;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161-183; Robert Letham, *The Westminster Assembly: Reading Its Theology in Historical Context* (Phillipsburg: P&R Publishing, 2009), 228;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130-131;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서울: 대한기독교사회, 2006), 13.

를 중심으로 한 성경의 통일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특정 주제 맞추어 인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⁵ 중세의 경우 유명론자들의 언약개념⁶에서 확인 가능하데, 그 핵심에는 신인협력적 구원 즉,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속에서 '협력적 공로'의 최선의 행위를 토대로 인간에게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은혜의 상태의 인간에게 '타당한 공로'로서 영생을 주신다는 이해가 있었다.⁷ 그러나 종교개혁 시기에 이르러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를 기점으로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 요하네스 외콜람파디우스(Johannes Oecolampadius, 1482-1531), 존 칼빈,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 볼프강 무스쿨루스(Wolfgang Musculus, 1497-1563),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 1519-1605) 등을 통해 율법과 복음의 구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특징들이 세워졌다.⁸ 또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이르기까지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 1534-1583), 캐스퍼 올레비아누스(Caspar Olevianus, 1536-1587), 더들리 페너(Dudley Fenner, 1558-1587),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603)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더불어 구속협약적 이해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자연 혹은 창조언약(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이중도식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 원리로 이해하게 했으며,

-
- 5 페스코와 올시는 위의 책에서 역사가 유세비우스(Eusebius, 37-100),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156-157), 이레네우스(Irenaeus, 175-185), 클레멘트(Clement, 150-215), 락틴타우스(Lactantius, 250-325), 히에로니무스(Hieronymus, 347-420,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의 언약 개념을 드러냈다.
 - 6 Lillback, 『칼빈의 언약사상』, 62-80;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128;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184-203;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297; 1번 각주를 참조하라.
 - 7 Lillback, 『칼빈의 언약사상』, 69; Andrew A.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197-200; 릴백과 올시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를 기점으로 유명론자들인 오컴(William of Ockham, 1285-1349), 홀콧(Robert Holcot, ?-1349), 브레드워드인(Thomas Bradwardine, 1290-1349), 비엘(Gabriel Biel, 1420-1495), 스타우피츠(Johann von Staupitz, 1460-1524)등을 언급하며 그들의 언약 신학을 소개한다.
 - 8 Lillback, 『칼빈의 언약사상』, 81-211;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128-137;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204-420.

이후 영국에서 그들의 신학이 꽃을 피우게 되었다.⁹ 여기까지가 개혁주의 언약 신학의 형성사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영국에서 언약신학이 발화하던 시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인물로는 청교도의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가 있다.¹⁰ 그리고 퍼킨스 이후로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언약신학 가운데 구속협약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구원론과의 조화를 추구했는데, 이를 가장 먼저 시도한 인물로는 데이비드 디슨(David Dickson, 1583-1663)이 꼽힌다.¹¹ 우선, 퍼킨스는 자신의 저서 『황금사슬』(*A Golden Chaine*)을 통해 언약신학을 신학 전반에 드러냈다. 살펴보면, 그는 총 59장의 내용 가운데 성경에서 드러나는 언약의 발전을 따라 계시론, 하나님, 예정과 창조, 인간과 타락, 선택과 작정,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구원의 서정 등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아담의 행위언약의 실패 후 구원협약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그리고 그 실행의 외적인 수단으로서 은혜언약을 논했다. 그리고 그는 행위언약(시내 산 언약)을 통해 신자들에게 율법을 해설하면서 실천적인 삶을 독려하고 구원 확신을 검증할 것을 독려했다.¹² 왜냐하면, 그는 종교개혁 시대에 일반적이었던 “신적 작정의 -구원의 측면에서- 실행으로서 언약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예정을 강조”¹³하는 것에서 오는 반동으

9 Peter Golding, *Covenant Theology*, 박동근 역, 『현대인을 위한 언약신학』(경기도: 그나라, 2015), 1-60; Antony T. Selvaggio, *The Faith once Delivered*, 김은득 역,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유산: 단번에 주신 믿음』(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392-393;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130-134;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7-79.

10 Golding, 『현대인을 위한 언약신학』, 60; Selvaggio,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유산: 단번에 주신 믿음』, 393;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134;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45-56.

11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165-166; Fesko,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Fearn: Christian Focus Publication, 2016), 8-9; 조엘 비키·마크 존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280-281; 우병훈, “데이빗 디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71, 89; 구속 협약이 디슨의 “총회 연설”을 통해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에 영어권에서는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

12 William Perkins, *A Golden Chaine, Or the Description of Theologie, Containing the Order of the Causes of Salvation and Damnation*, trans. another (Edinburgh: Robert Walde-grave, 1592), 96-97.

13 Lillback, 『칼빈의 언약사상』, 321-32.

로서 구원의 확신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⁴ 특히, 퍼킨스는 『황금사슬』을 출간하기 전 1579년 피터 바로(Peter Baro, 1534-1599)와 1584년 사무엘 하스네트(Samuel Harsnet, 1561-1631)의 이중 예정에 나타난 유기에 대한 반대를 경험했다.¹⁵ 따라서 그는 『황금사슬』 서문에서 예정을 변호함과 동시에 적대자들을 비판했다.¹⁶ 또한 퍼킨스는 시내산 언약을 행위언약으로 해석하여 율법의 제3 용법의 차원에서 신자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인 언약의 성취로 구원의 공로는 없지만, 그 감사와 여전히 유효한 언약적 의무로서 실천적 삶을 강조했다.¹⁷

이어서, 디슨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의 핵심으로서 구속협약을 체계화하려 했다. 왜냐하면, 그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의 오류에 대항하기 위해서 언약교리를 세워야 하는데, 그 핵심에 구속협약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⁸ 먼저, 디슨은 딤후 2:19를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사이에 그들의 구속의 값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택자)을 아신다.”고 주장함을 통해 구속협약을 처음 언급했다.¹⁹ 또한 그는 시편, 히브리서 그리고 에베소서 등을 근거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과 관련성 안에서 구속언약을 논했다.²⁰ 이뿐 아니라 디슨은 『구원하는 지식의 요지』(*The Summe of Saving Knowledge*)의 주제II에서 창세전에 삼위 가운데 특히 아버지와 아들의 동의로서 구속협약을 논했다.²¹

14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65; 안상혁, 『언약신학 쟁점으로 읽는다』, 102-103; 퍼킨스와 동시대 인물인 리처드 그린햄(Richard Greenham, 1542-1594)을 통해서도 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데, 목회자였던 그린햄이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선택에 대한 불확신과 유기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15 김홍만, “윌리엄 퍼킨스의 칼빈 신학의 계승과 적용,”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총서 7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3), 68.

16 Perkins, *A Golden Chaine*, 2-3.

17 Perkins, *A Golden Chaine*, 95-98.

18 David Dickson, *Record of the Kirk of Scotland, Containing the Acts and Proceedings of the General Assemblies, From the Year 1638 Downwards*, ed. Alexander Peterkind (Edinburgh: Peter Brown, 1845), 156; 조엘 비키·마크 존스,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239.

19 David Dickson, *Select practical writings of David Dickson*, vol.1 (Edinburgh, 1845), 101; 우병훈, “데이빗 디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74. 재인용.

20 우병훈, “데이빗 디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75-81; 시편 2:7-8; 22: 40; 80: 90; 118: 130; 히브리서 1:5; 7:22; 에베소서 1:3,7,14; 2:5,6

21 Dickson, *The Summe of Saving Knowledge*, 15.

그리고 그는 구속협약의 목적이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며, 이는 택자들을 선택함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²² 또한 그는 선택은 임명한 구속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²³ 계속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택자들을 수용하는 원리는 우선,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연합하는 의미에서의 성육신과 이어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이루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임명 받으신 권한을 따라 택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²⁴ 이처럼 디슨은 “구속협약 교리의 성립과 그 내용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²⁵

이후 퍼킨스와 디슨의 영향은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 1600-1661), 앤서니 버지스(Anthony Burgess, d.1664), 그리고 빌헬무스 아 브라끌(Wilhelmus à Brakel, 1635-1711)에게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더불어 그리스도 중심적 언약 이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²⁶ 또한 퍼킨스와 디슨의

²² Dickson, *The Summe of Saving Knowledge*, 15.

²³ Dickson, *The Summe of Saving Knowledge*, 15.

²⁴ Dickson, *The Summe of Saving Knowledge*, 15.

²⁵ 우병훈, “데이빗 디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83.

²⁶ Samuel Rutherford, *The Covenant of Life Opened, or a Treatise of the Covenant of Grace: Containing Something of the Nature of the Covenant of Works, the Sovereignty of God, the Extent of the Death of Christ, the Nature and Properties of the Covenant of Grace, the Covenant of Suretyship or Redemption Between the Lord and the Sonne* (Edinburgh: Printed by Andro Anderson for Robert Brown, 1655), 192-197, 206-209, 214-217, 225-368; Anthony Burgess, *Vindiciae Legis: Or, a Vindication of the Moral Law and the Covenants, from the Errours of Papists, Arminians, Socinians, and More Especially, Antinomians*. In *XXX Lectures, Preached at Laurence-Jury, London* (London: Printed by James Young, for Thomas Underhill, 1647), 79, 122-131, 188-266; Wilhelmus à Brakel,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Vol.1, 김효남 외 2인역,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1』(서울: 지평서원, 2019), 131-534, 671-710, 779-1134; Wilhelmus à Brakel,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Vol.2, 김효남 외 2인역,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2』(서울: 지평서원, 2019), 131-145; Brakel,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Vol.4, 김효남 외 2인역,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4』(서울: 지평서원, 2019), 563-802; 이들도 우선, 언약신학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에 대한 구속언약적 이해, 이어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 이해 속에서 신자와의 연합을 통한 구속의 적용, 마지막으로, 율법의 제 3용도를 통한 신자들의 삶의 실천을 논했다.

언약신학은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 1862-1949),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 1873-1957)와 같은 근현대의 체계와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의미에서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²⁷ 이 뿐 아니라 근래에 언약신학 발전에 이바지한 존 페스코(John Fesko)와 코넬리스 베네마(Cornelis Venema)의 경우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²⁸ 바로 이 지점에서 퍼킨스와 덕슨의 언약신학을 연구할 당위성이 드러난다. 환언하면, 초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형성사 속에서 퍼킨스와 덕슨의 위치가 중요하기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국내의 경우에는 퍼킨스의 언약신학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 원종천, 안상혁, 그리고 문정식이 있으며,²⁹ 덕슨의

27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Vol. 3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3권』(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260-263, 278-284, 285, 313, 333-336, 369, 381, 649-651; Geerhardus Vos, *Reformed Dogmatics*, vol. 2 trans. Richard B. Gaffin Jr. (Grand Rapids: Lexham Press, 2015), 31-137;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이상원 역, 『벌코프 조직신학 합본』(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422-430, 485-507; 우선, 바빙크는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구속협약이 있었고, 이를 시행하는 방식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었으며, 이를 시행하는 은혜언약 가운데 신자들이 그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인격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둘째, 보스는 신론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다룬 뒤 인간론에서 행위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관계였음을 드러냈고, 파기된 후 은혜언약을 논하는 가운데 그 기원이 구속언약에 있음을 드러냈으며, 구속언약이 시간 안에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시행된 것이 은혜언약을 주장했다. 셋째, 벌코프도 신론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논한 후에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행위언약과 그 실패를 다루고, 삼위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구속 언약과 함께 그 시행으로서 중보자 그리스도 중심적인 은혜 언약에 대해서 다룬다.

28 Fesko,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1-48, 205-223, 233-243, 256-264; Venema, *Christ and Covenant Theology*, 3-5, 28-36, 37-144, 147-183; 우선, 페스코는 구속협약의 역사적 기원(덕슨)과 발전을 살피고, 하나님의 작정(예정)으로서 구속협약은 행위언약의 파기와 더불어 은혜언약을 통해 실행되는데, 언약의 머리인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함을 드러냈다. 이어서, 베네마는 신약고백 전통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선택의 시행으로서 구속협약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교제를 누리야 하는데, 첫 아담의 행위언약의 파기로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언약 가운데 지속되며 마지막에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종말론적 관점을 보여준다. 물론, 베네마는 역사 가운데 행위언약에 대한 용어 사용의 갈등, 모세 언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하면서 행위언약의 용어 사용이 가능하며, 모세 언약은 은혜언약이지만 행위언약의 내용이 계승된 것으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언약임을 드러냈다.

29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31-56; 안상혁, 『언약신학 쟁점으로 읽는다』(수

언약신학을 연구한 국내 학자로는 우병훈이 유일하다.³⁰ 이어서 국외의 경우에는 퍼킨스와 딕슨의 언약신학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 리차드 멀러(Richard Muller), 조엘 비키(Joel Beeke), 존 페스코(John Fesko), 앤드류 울시(Andrew Woolsey) 등이 있다.³¹

원: 영음사, 2016), 108-132; 문정식, “존 칼빈과 윌리엄 퍼킨스의 언약사상 - 그 연속과 발전,” 1-2, 147-256; 우선, 원종천은 퍼킨스의 언약신학을 논함에 있어서 당시 시대적·정치적·신학적 정황 속에서 청교도 언약 사상의 발전의 세 가지 양상인 개인 언약 사상, 교회 언약 사상, 사회 언약 사상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된다고 보고, 그 특징으로는 개인적, 윤리적 경건을 통한 신앙적 체제 개혁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퍼킨스가 행위언약을 아담 언약이 아닌 시내 산 언약(십계명)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더불어 신자의 신앙적 책임과 개인 경건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논증했다. 그래서 그는 퍼킨스가 행위언약의 강조를 통해 신자들의 경건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를 완전히 행할 수 없는 가운데, 은혜 언약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드러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안상혁은 칼빈과 후예들의 대립, 예정론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언약 개념을 거부하면서, 퍼킨스가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편무성과 쌍무성을 동시에 전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문정식은 앞선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퍼킨스의 언약신학에는 칼빈과의 연관성 속에서 작정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작정과 예정의 실행으로서 은혜언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탐구함과 동시에, 율법의 제 3용법에 기초하여 신자들의 신앙의 실천적 차원에서 언약의 쌍무성을 강조하는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30 우병훈, “데이빗 딕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개혁논총』, 34 (2015), 63-112; 그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확장시킨 것으로 딕슨의 언약신학을 논하기 위하여 우선, 그의 전기와 주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그가 확립한 구속협약이 당시에 활동한 개혁파 신학자들도 사용했던 개념임을 증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구속협약이 특징 다섯 가지를 드러냈다. 첫째, 딕슨의 구속협약에는 주해적, 교의적, 논변적인 신학 특성이 드러난다. 둘째, 딕슨의 구속언약에는 삼위일체론적 특성이 드러난다. 셋째, 딕슨의 구속협약에는 기독교론적 특성이 드러난다. 넷째, 딕슨의 구속협약은 신앙고백서 특히, 사보이선언과 신학적 연관성이 드러난다. 다섯째, 딕슨의 구속협약은 신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고양시킨다.

31 Richard Muller, “Perkins’ A Golden Chaine: Predestinarian System or Schematized Ordo Salutis?” *Sixteenth Century Journal*, 9 (1978), 68-81; Muller, *Christ and the Decree: Christology and Predestination in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Perkins*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2009), 129-173; Muller, 『칼빈 이후 개혁신학』, 40-42, 234, 235, 242; Muller,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on the work not Christ and the order of salvation* (Gran Rapids: Baker Academics, 2012), 229-236; Muller, “Toward the Pactum salutis: locating the origins of a concept,” *Mid-America Journal*, 18 (2007), 11-65; Joel Beeke, “William Perkins and His Greatest Case of Conscience: How a man my know whether he be the child of God, or no,” *Calvin Theological Journal*, 41 (2006), 255-278; Joel Beeke and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김귀탁 역,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144-161, 242-369; John Fesko, *Beyond Calvin: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in Early Modern*

이에 본 논문은 앞서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형성사를 통해 드러난 연구의 당위성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않은 퍼킨스와 디슨의 언약신학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특히, 퍼킨스와 디슨에게서 우선, 경륜적 삼위 일체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을 의미하는 구속협약 개념, 이어서, 행위언약의 실패와 더불어 구속협약의 시행으로서 은혜언약의 증보자인 그리스도 중심적 체계, 마지막으로, 언약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작정의 실제적 적용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언약신학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환언하면,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퍼킨스와 디슨의 언약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협약에서 은혜언약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발전 가운데 신자들에게 적용(연합) 및 실행되는 것을 드러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로써 본 논문은 칼빈 이후에 퍼킨스와 디슨을 통해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언약신학의 풍성함을 드러낼 것이다.

II. 윌리엄 퍼킨스와 데이비드 디슨의 언약신학의 특징

1. 구속의 작정 그 자체로서 구속협약

그렇다면, 퍼킨스와 디슨의 언약신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페스코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는 종교개혁이 거의 구원론에 관련된 주제에 관심이 있었다고 분석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신론과 구원론의 교차점에서 로마교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³² 이어서 그는 신론과 구원

Reformed Theology(1517-170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2), 251-268;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125-205, 239-258; Fesko,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Fearn: Christian Focus Publication, 2016), 3-48;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461-498; 이들은 대체적으로 퍼킨스와 디슨의 전후에 있는 인물들과 연관성을 살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을 드러내는 언약신학 가운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집행으로서 구속사역과 더불어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은혜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사적, 교리사적 개연성에 보다 집중했다.

³²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95.

론의 교차점은 결국 예정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이 예정론이 논쟁의 최대 이슈였다고 주장했다.³³ 따라서 페스코가 볼 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특히 구원의 차원에서 예정 속에 선택이 개혁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적대자들에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이다. 앞선 페스코의 분석이 타당한 이유는, 한 연구에 의하면 퍼킨스가 활동할 당시에도 이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예정론에 대한 반대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³⁴ 또한 퍼킨스의 『황금사슬』의 서문에서도 앞선 위기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개혁파 정통주의자들은 선택의 이슈와 더불어 신론과 구원론의 조화를 위해 언약신학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구속협약(*pactum salutis*)이 대두되었음을 논증했다.³⁶ 환언하면, 예정과 선택의 논쟁 속에서 언약신학이 구체화 되었고, 특히 구속협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언약신학의 발전과 더불어 구속협약의 논의들이 활발해지면서 신론과 구원론의 조화를 위한 노력들이 드러났는데, 이는 딕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딕슨은 우선, 『거룩한 치료』(*Therapeutica Sacra*)에서 구속 협약을 작정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다.³⁷

구속협약은 실상 구속의 영원한 작정과 하나인데, 모든 것에 자신의 뜻의 경륜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협약 안에서 택자들의 구원과 그 방식이 정해졌으며, ... 그리고 실상 구속의 작정은 언약인데, 한분이시자 세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동의하신 점은, 제2 위격이신 성자께서 성육신하시고 순종과 만족을 통해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주기로 하신 것이다. 그 섬김을 위해 성자는 자원하여 자신을 귀속시키심을 통해 그 작정은 실상 한 실재적인 언약이 되었다.³⁸

33 Fesko,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95.

34 Ian Breward, *Introduction in the Work of William Perkins* (Appleford: Sutton Courtenay Press, 1970), 84.

35 Perkins, *A Golden Chaine*, 2-3.

36 문병호, “개혁신주의란 무엇인가?: 신학과 신앙의 요체,” 70-72; 우병훈, “데이빗 딕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71;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297-299; Beeke and Jones,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280-282.

37 우병훈, “데이빗 딕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85-86.

이처럼 디슨이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과 구속협약을 동일하게 이해한 이유는 우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위격적 '질서' 가운데,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방식에 먼저 동의했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작정의 뜻과 목적에 맞는 구속 사역의 방식에 동의하신 지점에서 그 자체로 삼위 간에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스와 벌코프는 선택의 작정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구속협약은 선택의 방법과 수단인 협의로 이해했기에, 선택의 작정이 논리적으로 구속협약을 선행한다고 보면서 그 둘을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을 반대했다.³⁹ 반면에, 우병훈과 페스코는 시간적 측면이 아니라 논리적 측면에서 선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디슨과 같이 작정과 구속협약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⁴⁰ 이에 디슨의 앞선 이해는 충분히 가능하다.⁴¹

계속해서 디슨은 구속의 작정과 구속협약을 동일시함을 통해 작정 안에서 삼위일체를 부각시키고자 한 목적이 있었다.⁴² 이는 디슨이 구속협약을 삼위일체적 체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작정을 실행하고자 하신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⁴³ 앞선 이해 속에서 디슨은 삼위일체적 구도 가운데 구속협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 선택을 통해 주권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38 David Dickson, *Therapeutica Sacra: Shewing Briefly the Method of Healing the Diseases of the Conscience, Concerning Regeneration* (Edinburgh: Evan Taylor, 1664), 25.

39 Vos, *Reformed Dogmatics*, vol. 2, 87;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합본』, 493.

40 우병훈, “데이빗 디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86-87; Fesko,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27-30, 209-214, 221-223.

41 Fesko,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129-131.

42 Muller, “Toward the Pactum salutis: locating the origins of a concept,” 48-55; 우병훈, “데이빗 디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86, 95.

43 우병훈, “데이빗 디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97-98; Bavinck, 『개혁교의학 3권』, 260-261; Vos, *Reformed Dogmatics*, vol. 2, 85; Fesko,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18-21, 180-193; 경륜적 삼위일체 안에서 구속협약을 이해하는 것은 개혁주의 언약신학의 공통점이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예외 없이 각각의 모든 이를 위하여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다고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보증이 되시는 모든 이의 구원을 공로로 획득 하셨음을 언급한다.⁴⁴

그렇다면, 디슨은 구속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디슨은 『구원하는 지식의 요지』에서 크게 네 가지 주제들을 다뤘다.

구원하는 지식의 요지에는 다음 네 가지 주제들이 있다.

1. 행위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본 성적으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2. 구제 조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언약을 통해 택자들에게 제공된다.
3. 타락한 자들이 은혜언약의 택자로서 약속되는 수단
4. 이 수단을 통해 택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축복⁴⁵

이와 같이 디슨은 구속협약의 내용을 논하기 위하여 위의 네 가지 주제들을 통해 성경 계시에 입각한 역사성 속에서 언약신학의 발전적 구조를 보여준다. 우선, 그는 성경 계시 안의 첫 언약으로서 행위언약의 실패를 통한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언약의 필요성을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혜언약이 시행 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협의 속에서 성부와 성자의 동의로서 구속협약에 근거해야한다는 논리적 체계를 보여주었다.⁴⁶ 즉, 디슨은 행위언약의 실패를 먼저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논의로서 구속협약을 설명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은혜언약을 논한 것이다. 이에 디슨은 행위언약, 구속협약 그리고 은혜언약의 삼중구도를 논하는데, 이는 개혁신의 전통 안에서 언약신학의 일반적인 특징이다.⁴⁷

44 Dickson, *Therapeutica Sacra*, 36.

45 Dickson, *The Summe of Saving Knowledge*, 12.

46 Fesko,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23-24.

47 우병훈, “데이빗 디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82; Bavinck, 『개혁신의학 3권』,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부요한 은혜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말씀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계시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말이다. 이는 또한 창세전에 삼위일체의 협의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사이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진 구속협약에 의한 것이다.⁴⁸

구속협약의 요지는 이것이다.: 자신의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인류 가운데 특정한 수를 생명으로 값없이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속자로 기름 부으신 성자에게 그들을 주셨다. 이는 성자께서 낮아지셔서 영혼과 육체가 있는 인성을 취함을 통해 그 인성을 신성과 위격적으로 연합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택자들을 위해서 보증이 되신 자신을 율법에 친히 복종하시며, 택자의 이름으로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 택자를 위해 공의를 만족시키고, 모든 택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여 그들에게 의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모든 구속의 은혜를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적용하게 한다는 조건에서 그렇다.⁴⁹

이에 디슨이 체계화한 구속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 목적은 성부 하나님 자신의 은혜와 영광을 위함에 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선택을 통해 드러난다. 셋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속을 위하여 택자들을 성자에게 주셨다. 넷째, 택자들의 구속의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가운데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 속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능동적 순종(율법에 순종)과 수동적 순종(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는 것이다. 다섯째, 또한 중보자로서 임명된 권한을 따라 정해진 구속의 때에 택자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속량하여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적용한다. 이처럼 중보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협약의 방식과 조건을 구체화 하는 것은 이후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⁵⁰

277-278; Vos, *Reformed Dogmatics*, vol. 2, 31-137; Berkhof, 『별코프 조직신학 합본』, 422-430, 485-507; Fesko,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136-141.

48 Dickson, *The Summe of Saving Knowledge*, 15.

49 Dickson, *The Summe of Saving Knowledge*, 15.

50 우병훈, “데이빗 디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82-83; Bavinck, 『개혁교의학 3권』,

이어서, 딕슨은 구속협약을 통해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은혜 언약을 통해 적용가능하다고 보았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 2위격으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그분은 창세전에 우리 택자들을 위해 성부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 이후에 또한 시간 안에서 대속의 값을 치루셨다. 그리고 우리 몫의 은혜를 대신 먼저 받으셔서, 이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서 소명을 받고, 의롭게 되며, 정해진 때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⁵¹

이와 같이 딕슨은 구속협약의 원리 속에서 은혜언약을 설명하는데, 우선, 영원 전에 삼위 안의 협의 가운데 성부와 성자는 언약을 맺었고, 이어서, 앞선 언약에 근거하여 제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죄 값을 대신 지불하는 형태로 택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또한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으신 후에 승귀하셔서 영원한 중보자로서 택자들을 구원의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의롭다하시는 등 그들에게 언약 가운데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딕슨은 삼위일체의 구도 속에서 구속언약뿐만 아니라, 은혜언약을 전개하는 가운데, 중보자 그리스도 중심적 체계를 드러내고자 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⁵² 이에 구속협약에 대한 논의와 신론과 구원론의 조화의 상관성은 구속협약을 구속의 작정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삼위 중 특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됨을 통해 드러났다. 환언하면, 하나님(신론)의 구속(구원론)의 작정은 구속협약과 동일한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은혜언약을 통해 실행하시는 것이다.

260-261, 486-491; Vos, *Reformed Dogmatics*, vol. 2, 85-87; Fesko,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132-136, 239-242.

51 David Dickson, *An exposition of all st. Pauls epistles, together with an explanation of those other epistles of the apostles*(London: R. I. for Francis Eggesfield), 171; 우병훈, “데이빗 딕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78. 재인용

52 Muller, “Toward the Pactum salutis: locating the origins of a concept,” 64; 우병훈, “데이빗 딕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96-99; 멀러와 우병훈은 딕슨이 그리스도 중심적 체계 속에서 대속사역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작정의 실행이자 구속의 적용으로서 이해하는 것을 방지했다고 본다.

따라서 디슨의 언약신학의 특징은 작정 그 자체로서 구속협약을 이해한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중보자 개념 속에서 구속협약의 시행의 방식을 논했고, 더 나아가 구속협약, 행위언약, 은혜언약의 삼중구조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는 구속협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드러내는 개혁신학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2. 언약을 통해 작정을 실행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

계속해서 디슨은 앞선 논의를 확장하여 작정 그 자체로서 구속협약의 실행의 기초인 중보자의 삼중직과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적 체계를 논하고자했다.

구속협약을 성취하고, 은혜언약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 세 가지 직분에 동참하셨다.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식을 계시하기 위해, 그들이 믿음과 동시에 순종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선지자가 되셨다; 그 스스로 백성들 모두의 영단번의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 성부께서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의 인격과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이 되셨다; 그 스스로 백성들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그 스스로 임명되어 그들을 먹이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되셨다.⁵³

이는 삼위일체의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협약으로서 구체화되는 가운데, 작정의 기초로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과 사역을 통해 구속협약이 시행 및 성취됨을 은혜언약 안에서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⁵⁴

그러나 앞선 디슨의 노력은 이미 퍼킨스의 『황금사슬』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1장 계시와 성경, 2장부터 5장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후에, 6장에서 동일본질로서 하나이시며, 구별된 위격의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의 실행을 함께하신다는 경륜적 삼위일체를 논했다.

53 Dickson, *The Summe of Saving Knowledge*, 15.

54 우병훈, “데이빗 디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83.

하나님의 사역은 그분 자신의 밖으로, 즉 그분의 본질 밖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 사역은 삼위일체 가운데 공통된 것인데, 모든 위격이 행하시는 각각의 고유한 방식은 항상 유지된다. 그 모든 사역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다.⁵⁵

이처럼 그는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논한 후 비로소 경륜적 삼위일체 안에서 작정과 동일한 구속협약적 이해를 드러냈는데, 특히 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작정에 동의하심을 통해 작정과 선택의 실행의 기초가 되셨음을 나타냈다.

작정은 항상 하나님의 의지와 연관되며, 이 의지에 따라서 작정한 것을 원할 수 있으시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작정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이 필연적이 었다(행 17: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기꺼이 원하셨다(마 25:39).⁵⁶

그리고 퍼킨스는 그리스도께서 작정의 실행의 기초로서의 당위성을 부각하기 위해 우선, 9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최초의 언약을 유추할 수 있는 선악과 금지 명령⁵⁷, 이어서, 11장에서 아담의 타락과 언약의 파기⁵⁸와 더불어 언약적 대표인 그로 하여금 인류에게 전가된 죄를 논했고⁵⁹,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서 앞선 죄의 해결책은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 작정에 동의하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밝힌다. 여기서 퍼킨스는 하나님의 “예정에는 선택의 작정과 유기의 작정”⁶⁰있으며, 작정의 실행의 기초로서 그리스도를 논했다.⁶¹

⁵⁵ Perkins, *A Golden Chaine*, 23.

⁵⁶ Perkins, *A Golden Chaine*, 25.

⁵⁷ Perkins, *A Golden Chaine*, 36-37; 물론 퍼킨스는 이에 대해서 행위언약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⁵⁸ Perkins, *A Golden Chaine*, 42.

⁵⁹ Perkins, *A Golden Chaine*, 44-45.

⁶⁰ Perkins, *A Golden Chaine*, 64; “predestination hath two partes: Election, and Reprobation.”

⁶¹ Perkins, *A Golden Chaine*, 64-66.

이(작정) 실행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기초, 둘째, 수단, 셋째 단계이다. 기초는 중보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영원으로부터 아버지께 부름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이다. 그분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자들을 선택받는다.⁶²

이처럼 퍼킨스는 택자들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를 작정의 실행의 기초임을 논했으며,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특히, 바빙크, 보스, 벨코프, 멀러, 그리고 울시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³

그렇다면, 작정의 실행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해 퍼킨스는 아담 이후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작정을 실행하시기 위한 두 가지 원리로서 ‘성육신’과 ‘직분’을 소개한다.⁶⁴ 그는 작정의 실행의 첫 번째 원리인 성육신은 “두 본성, 본성들의 연합, 본성들의 구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⁶⁵ 첫째, 그는 15장에서 두 본성은 중보자직과 관련이 있는데, 신성은 악을 감당하고 인성에게 공로를 전가하며, 신자들에게는 거룩성을 부여한다고 보았다.⁶⁶ 또한 그는 중보자의 인성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죄의 형벌을 감당한다고 설명했다.⁶⁷ 둘째, 그는 16장에서 두 본성의 연합은 “중보 사역을 최대한 수행하기 위한 것”⁶⁸로서 “성자의 위격이 인간의 본성을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존재를 인성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방식은 “속성의 교류(communion of proprieties)”⁶⁹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한 신적 로고스인 말씀의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이 동시에 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⁷⁰ 셋째, 그는 17장에서 두 본성의 구별에 대해 칼케돈 신경에

62 Perkins, *A Golden Chain*, 65-66.

63 Bavinck, 『개혁교의학 3권』, 279; Vos, *Reformed Dogmatics*, vol. 2, 87; Berkhof, 『벨코프 조직신학 합본』, 422-430, 485-507; Muller, “Perkins’ A Golden Chain: Predestinarian System or Schematized Ordo Salutis?” 71, 76;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490.

64 Perkins, *A Golden Chain*, 66.

65 Perkins, *A Golden Chain*, 66.

66 Perkins, *A Golden Chain*, 66-67.

67 Perkins, *A Golden Chain*, 68.

68 Perkins, *A Golden Chain*, 69.

69 Perkins, *A Golden Chain*, 71.

근거하여 본성들의 특성과 작용이 혼합, 변이, 분할, 또는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했다.⁷¹ 그리하여 퍼킨스는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이 한 말씀의 위격 안에서 교통하는 연합을 통해 먼저, 잉태되시고, 이어서, 거룩하게 되시며, 그리고 받아들이심으로 성육신하신다고 보았다.⁷²

작정의 실행의 두 번째 원리인 직분에 대하여, 퍼킨스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의 연합을 통해 중보자로서 사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⁷³, 19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의 시행의 측면에서 직분 자체를 논하는데, 이는 중보자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서 삼중직이다.⁷⁴ 첫째, 제사장직은 “속죄”와 “중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온전히 획득하는 일들을 완수하시는 것”⁷⁵인데,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택자들을 위하여 충분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⁷⁶이고, 중보는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고하시는 것”⁷⁷을 의미했다. 또한 퍼킨스는 그리스도께서 행위언약 파기로 인한 속죄 문제를 순종을 통해 두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와 공의의 만족을 통해 이루셨다고 설명했다.⁷⁸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의 변호인이자 중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신성을 통해 대속의 공로를 적용하며 성령 안에서 중재하심으로 중보를 이루셨다고 보았다.⁷⁹ 환언하면, 중보자의 제사장직은 속죄를 통해 의롭게 된 택자들이 은혜의 상태의

70 Perkins, *A Golden Chaine*, 70-71.

71 Perkins, *A Golden Chaine*, 73-74.

72 Perkins, *A Golden Chaine*, 69-70.

73 Perkins, *A Golden Chaine*, 69; Nowe followeth the union of the two natures in Christ, which especially concerneth his mediation

74 Perkins, *A Golden Chaine*, 75-94;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바빙크와 보스는 삼중직에 대한 뚜렷한 구분 보다는 삼중직의 연합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Bavinck, 『개혁신학의 3권』, 418-419, 445-449; Vos, *Reformed Dogmatics*, vol. 3, 85-241;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합본』, 565-566를 참조하라.

75 Perkins, *A Golden Chaine*, 75; “Christ’s Priesthoode, is an office of his, whereby he perfourmed all those things to God, whereby is obtained eternal life.”

76 Perkins, *A Golden Chaine*, 75; “Satisfaction, is that, whereby Christ is a full propitiation to his father, for the elect.”

77 Perkins, *A Golden Chaine*, 85; “Christ’s intercession is directed to God the Father.”

78 Perkins, *A Golden Chaine*, 76-77.

79 Perkins, *A Golden Chaine*, 84-85.

유지를 위해 아버지께 증보하는 사역이다.⁸⁰

둘째, 선지자직은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을 계시하는 것이다.⁸¹ 여기서 퍼킨스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는데 특히, 환상, 꿈, 대화로부터 점차 구체화 되었고, 성령의 조명과 성경기자들을 통해 이루셨다고 보았다.⁸² 이에 퍼킨스는 언약의 증보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스승이며 계시의 해석자라고 정의했다.⁸³ 앞선 퍼킨스의 구속 계시자로서 선지자직에 대한 이해는 특히, 벌코프에게 지지 받는데, 성육신 이전의 구약에서는 지혜자로, 신약에서는 구속 사역과 삶으로 선지자직을 감당한다고 보았다.⁸⁴

셋째, 그리스도의 왕직은 택자들의 구원을 위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고 왕권을 세우는 두 본성의 높아지심을 의미한다.⁸⁵ 여기서 퍼킨스는 왕직에는 ‘택자들의 구원을 준비함’과 ‘기능적 수행에 있어서 높아지심(승귀)’을 구분했다.⁸⁶ 우선, 그는 전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과 ‘사탄의 나라를 폐함’으로 구분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과 교회로 구분하고, 증보자가 후자를 다스리도록 법을 제정하고 대리자를 세운다고 보았다.⁸⁷ 반면에 그는 심판 때에 신성의 높아지심으로 증보자가 사탄의 나라의 사자들, 불신자들, 그리고 사탄을 폐하시고⁸⁸, 이를 정복 한 후에 아버지께 나라를 돌려드리고 질서 가운데 복종한다고 보았다.⁸⁹

⁸⁰ Perkins, *A Golden Chaine*, 86.

⁸¹ Perkins, *A Golden Chaine*, 87.

⁸² Perkins, *A Golden Chaine*, 87.

⁸³ Perkins, *A Golden Chaine*, 88.

⁸⁴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합본』, 593-598.

⁸⁵ Perkins, *A Golden Chaine*, 88-94.

⁸⁶ Perkins, *A Golden Chaine*, 88.

⁸⁷ Perkins, *A Golden Chaine*, 92.

⁸⁸ Perkins, *A Golden Chaine*, 92-93.

⁸⁹ Perkins, *A Golden Chain, Or the Description of Theology, Containing the Order of the Causes of Salvation and Damnation*, ed. Greg Fox (Edinburgh: Puritan Reprint, 2010) 53: 앞서 인용한 판본에 내용이 누락되어있어 Greg Fox의 편집본을 참고하여 소개한다. “After that Christ hath subdued all his enemies, these two things shall ensue. 1. The surrendering over of his kingdom to God the Father, as concerning the regiment: for at that time shall cease both that civil regiment and spiritual policy, consisting

이어서, 퍼킨스는 기능적 수행의 높아지심은 신성과 인성에 따라 구분했는데, 신성의 높아지심은 인성 안에서 신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고, 인성의 승귀는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영원한 은사들을 누리는 것을 의미했다.⁹⁰ 또한 그는 높아지심의 단계로 완전한 속죄를 위해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 신자의 천국과 성령을 예비하고 인성의 영광을 위해 하늘에 오르신 “승천”, 그리고 성부께 하늘의 영광, 권세, 통치권을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보좌 우편에 계심”이 있다고 보았다.⁹¹

이뿐 아니라, 퍼킨스는 20장에서 성육신과 삼중직을 통한 증보자 그리스도의 작정의 실행의 기초됨의 근거가 ‘언약’임을 논했다.⁹² 구체적으로 그는 선택의 작정의 외적인 수단이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인”이라고 보았다.⁹³ 그리고 그는 언약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쌍무적이며, 행위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⁹⁴ 환언하면, 선택의 작정의 기초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 본성의 위격적 연합을 통해 성육신하셔서 삼중의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특히, 언약에 근거하여 성취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퍼킨스는 32장에서 은혜언약에 대해 논하는데, 이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이 있으며, 그분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인류가 그로 하여금 구원 받았음을 통해 설명했다.⁹⁵

따라서 퍼킨스를 통해 살펴본 작정의 실행의 기초인 그리스도께서 한 말씀(로고스)의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의 연합과 더불어 비화와 승귀 가운데 성육신과 삼중직의 사역을 감당하여 작정을 실행하신다는 이해는 언약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

in word and Spirit together. 2. The subjection of Christ only in regard of his humanity. ...We may not therefore imagine that the subjection of Christ consisteth in diminishing the glory of the humanity, but in manifesting most fully the majesty of the Word.”

⁹⁰ Perkins, *A Golden Chaine*, 89.

⁹¹ Perkins, *A Golden Chaine*, 90-91.

⁹² Perkins, *A Golden Chaine*, 95.

⁹³ Perkins, *A Golden Chaine*, 95; The meanes are, Gods covenant, and the seale thereof.

⁹⁴ Perkins, *A Golden Chaine*, 95.

⁹⁵ Perkins, *A Golden Chaine*, 274-275.

3. 구속의 작정과 선택의 적용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다면, 작정의 기초시며,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신자에게 작정의 실행 즉, 구원을 적용하시는가. 이에 대하여 퍼킨스는 그리스도께서 신자와 연합을 하심으로 가능하다고 답한다.⁹⁶ 구체적으로 그는 앞서 『황금사슬』 32장에서 은혜언약에 대해서 다룬 후, 36장에서 작정의 실행 그 자체이자 은혜언약의 실제적 적용으로서 구원의 서정을 논했다. 이어서 그는 37장부터 구원의 서정의 실행 원리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했다.⁹⁷ 이는 퍼킨스가 중보자를 통한 은혜언약의 성취와 그 유익으로서 구속이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라는 사유(구원의 서정)가 가능했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급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⁹⁸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내용은 무엇인가. 퍼킨스는 “접붙여지는 것”⁹⁹, “하나가 되는 것”¹⁰⁰, 그리고 “영으로 교통하는 것”¹⁰¹으로 답했다. 우선, 그는 신자와 그리스도 간에 “선물”의 차원에서 연합을 논하면서 “접붙여지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나님을 통한 기부 또는 값없는 선물로서 죄인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주시는 것이다.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지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하나로 자라는 것이다.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시고, 중생한 죄인은 그의 신비한 지체를 이룬다.¹⁰²

96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477.

97 Perkins, *A Golden Chaine*, 298-312.

98 Muller,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229-236;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481.

99 Perkins, *A Golden Chaine*, 299; “conjunction, which is the engrafting of such as are to be saved, into Christ.”

100 Perkins, *A Golden Chaine*, 299; “their growing up together with him(Christ).”

101 Perkins, *A Golden Chaine*, 300; “by the communion, and operation of the same spirit.”

102 Perkins, *A Golden Chaine*, 298-299.

이러한 퍼킨스의 이해는 바빙크, 보스, 벌코프, 울시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구속협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은혜언약의 성취가운데 드러나는 것으로 언약적 머리인 증보자와 몸인 성도의 연합을 의미한다.¹⁰³ 이어서, 퍼킨스는 “영으로 교통하는 것”으로서 연합의 실제성을 논했다.

이는 매우 밀접하며, 실제적인 연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붙이는 것, 혼합하는 것, 혹은 영혼과 영혼이 접촉되는 것이나, 또는 영혼의 전적인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는 영혼이 사람의 머리와 발을 결합하는 것과 같다(엡 2:22).¹⁰⁴

이뿐 아니라 퍼킨스는 실제적인 연합으로서 “영으로 교통하는 것”은 “신자의 전 인격과 신인이신 그리스도의 전인격이 참되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⁰⁵

연합된 실체: 이 연합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혼과 연합되거나, 혹은 육체와 육체가 연합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믿는 자의 전인격과 하나님과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전인격이 참되게 연결되는 것이다.¹⁰⁶

이처럼 퍼킨스가 이해한 그리스도와 신자의 인격적 연합은 근대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언약적 정황 속에서 머리인 증보자 그리스도와 신자간의 연합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¹⁰⁷ 그렇다면, 이러한 실제적인 연합은

103 Bavinck, 『개혁교의학 3권』, 651; Vos, *Reformed Dogmatics*, vol. 4, 21;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합본』, 695;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478.

104 Perkins, *A Golden Chaine*, 300.

105 안상혁, 『언약신학 쟁점으로 읽는다』, 126-127; 특히 안상혁은 퍼킨스의 영적인 연합에 대한 이해는 중세의 신비주의와 같은 본성의 합일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했다.

106 Perkins, *A Golden Chain*, 169; 앞서 인용한 판본에 내용이 누락되어있어 Greg Fox의 편집본을 참고하여 소개한다. “The things united. In this union, not our soul alone is united with Christ’s soul, or our flesh with his flesh: but the whole person of every faithful man is verily conjoined with the whole person of our Savior Christ, God and man.”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퍼킨스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먼저 연합한 후에 신성과 연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연합의 방식은 이것이다. 신자가 우선, 그리고 즉시 그리스도의 몸, 또는 인성과 연합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해서 말씀, 또는 신성과 연합이 이루어진다. 구원과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와 교통되지 않는다.¹⁰⁸

이는 신인 양성 간에 연합 속에서 로고스이신 증보자 그리스도가 신자와 연합한다는 실제적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는 특히 보스에게서 드러나는데, 그는 언약의 로고스로서 신적 위격 가운데 신인 양성의 연합의 증보자로서 그리스도와 증생한 자들의 연합이라고 보았다.¹⁰⁹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방식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퍼킨스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라고 주장했다.¹¹⁰

그분의 영의 교통하심과 효과를 통하여 이루신다. 그분은 무한하시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를 하나로 연합시키실 수 있으신데, 마치 영혼이 머리와 발을 연결시키는 것과 같다. ……이 연합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용되신다. 우리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하여 받는 자에게 제시되신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영적이라고

107 Bavinck, 『개혁교의학 3권』, 649; Vos, *Reformed Dogmatics*, vol. 4, 21;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합본』, 662; Woolsey,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478.

108 Perkins, *A Golden Chain*, 169; 앞서 인용한 판본에 내용이 누락되어있어 Greg Fox의 편집본을 참고하여 소개한다. “The manner of their union is this. A faithful man, first of all and immediately, is united to the flesh of humane nature of Christ and afterward, by reason of the humanity, to the Word itself of divine nature. For salvation and life dependth on that fullness of the Godhead which is in Christ, yet it is not communicated unto us, but in the flesh and by the flesh of Christ.”

109 Vos, *Reformed Dogmatics*, vol. 4, 24.

110 Perkins, *A Golden Chaine*, 300; by the communion, and operation of the same spirit.

부른다.¹¹¹

환언하면, 퍼킨스는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가 성취한 은혜언약을 통한 구속을 신자 개개인에게 적용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신자의 구원의 서정을 실행하기 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분의 공로를 신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있다.

그리스도를 받음은 특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그분 스스로 일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되, 마음의 내적 확신을 통해 받는 것이다. 이는 다른 방법으로 발생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성령께서 유효하게 확증하심으로 발생된다.¹¹²

앞선 이해가 가능했던 이유는 퍼킨스가 아담이 행위언약을 실패하여 죄를 전가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대속의 공로가 전가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법정적 의미에서 의의 전가와 더불어 연합을 이해하는 것으로 개혁신주의 언약신학의 특징이다.¹¹³

그러므로 퍼킨스를 통해 살펴본 구속의 적용으로서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 언약 안에서 실제적으로 머리와 몸으로서 하나임과 동시에 인격적인데, 이는 신적 로고스인 증보자의 한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의 연합에 근거 하고 있으며, 그분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이루신 의가 성령을 통해 연합한 신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신주의 전통과 일맥상통한다.

111 Perkins, *A Golden Chaine*, 300; Perkins, *A Golden Chain*, 169-170; 앞서 인용한 판본에 내용이 누락되어있어 Greg Fox의 편집본을 참고하여 소개한다. “by the communion, and operation of the same Spirit. which being by nature infinite, is of sufficient ability to conjoin those things together which are of themselves far distant from each other: the like, we see in the soule of man, which conjoineth the head with the foot. …This union is made by the Spirit of God applying Christ unto us: and on our parts by faith receiving Christ Jesus offered unto us. And for this cause is it termed a spiritual union.”

112 Perkins, *A Golden Chaine*, 304.

113 Bavinck, 『개혁신교의학 3권』, 122, 651-652; Vos, *Reformed Dogmatics*, vol. 4, 21-23, 27; Berkhof, 『별코프 조직신학 합본』, 695-696, 698.

III. 나가는 말

이상의 본 연구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윌리엄 퍼킨스와 데이비드 딉슨의 언약신학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우선, 퍼킨스와 딉슨의 언약신학 연구의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약신학의 형성사 및 연구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언약신학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중세, 종교개혁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거쳐 발전했으며, 퍼킨스와 딉슨에 이르러 보다 체계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퍼킨스와 딉슨과 동시대 혹은 그 이후에 활동한 신학자들 그리고 근대의 신학자들의 이해와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어서, 퍼킨스와 딉슨의 언약신학의 특징들을 규명했다. 그 특징으로는 작정과 선택 그 자체로서 구속협약, 작정과 선택의 실행의 기초로서 그리스도 중심적 체계, 그리고 작정과 선택의 적용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드러났다. 특히,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두 인물의 언약신학적 이해 즉, 행위언약, 구속협약, 은혜언약의 구조적 이해에 입각하여 제시했다.

우선, 딉슨을 통해 구속협약 안에서 삼위일체의 구도와 더불어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과 더불어 성자 그리스도의 증보자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원리적으로 체계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혁주의 언약신학적 전통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예정)이 구속협약을 통해 드러났고, 작정의 실행 및 적용은 은혜언약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사람에게서는 구원의 공로가 있을 수 없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결국, 딉슨의 구속협약을 통해 신론과 구원론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작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 밝혀졌다.

이어서, 퍼킨스를 통해 언약신학 안에서 구속의 작정 가운데 기독교적 체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구속협약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과 더불어 동일본질인 삼위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 중 특히, 작정의 실행으로서 증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이 강조됨을 의미했다. 특히, 그리스도 중심적 체계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증보자로서의 사역 즉, 두 본성의 연합 안에서 삼중직(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순종(능동적, 수동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분으로서 그분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환언하면, 성육신 하신 가운데 언약의 성취를 위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 한 위격 가운데 두 본성의 연합을 이루신 중보자다.

마지막으로, 퍼킨스는 그의 언약신학의 특징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신자는 자신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구원 받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환언하면, 퍼킨스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즉, 예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을 통해 구원의 서정이 신자들에게 적용됨을 설명했으며, 이는 결국 언약을 통해 드러남을 상기시켰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전 과정 가운데 퍼킨스와 디슨의 언약신학의 특징을 규정함을 통해 개혁신주의 언약신학이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 중심적 체계 속에서 얼마나 풍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혁신주의 전통 안에서 언약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신주의 전통 안에서 언약신학은 구원 계시(성경)의 점진적 발전과 완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와 더불어 신자의 구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진리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가 본 논문의 연구 범위다. 앞으로도 개혁신주의 전통 안에서 언약신학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언약신학의 특징들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à Brakel, Wilhelmus.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Vol.1 ed. Joel Beeke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1992; 김효남 외 2인역.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1』. 서울: 지평서원, 2019.
- _____.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Vol.2 ed. Joel Beeke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1993; 김효남 외 2인역.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2』. 서울: 지평서원, 2019.
- _____.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Vol.4 ed. Joel Beeke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1995; 김효남 외 2인역.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4』. 서울: 지평서원, 2019.
- Bavinck, Herman. *Gereformeerde Dogmatiek*. Vol. 3 Netherlands: J. H. Kok, 1967;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3권』.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Beeke, Joel. "William Perkins and His Greatest Case of Conscience: How a man my know whether he be the child of God, or no." *Calvin Theological Journal*, 41 (2006), 255-278.
- Beeke, Joel and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김귀탁 역.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974; 권수경·이상원 역, 『별코프 조직신학 합본』.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Breward, Ian. *Introduction in the Work of William Perkins*. Appleford: Sutton Courtenay Press, 1970.
- Burgess, Anthony. *Vindiciae Legis: Or, a Vindication of the Moral Law and the Covenants, from the Errours of Papists, Arminians, Socinians, and More Especially, Antinomians. In XXX Lectures, Preached at Laurence-Jury, London*. London: Printed by James Young, for Thomas Underhill, 1647.
- Dickson, David. *Record of the Kirk of Scotland, Containing the Acts*

- and Proceedings of the General Assemblies, From the Year 1638 Downwards.* ed. Alexander Peterkind, Edinburgh: Peter Brown, 1845.
- _____. *Therapeutica Sacra: Shewing Briefly the Method of Healing the Diseases of the Conscience, Concerning Regeneration.* Edinburgh: Evan Taylor, 1664.
- _____. *The Summe of Saving Knowledge: with the practical use thereof.* Edinburgh: George Swintoun and Thomas Brown, 1671.
- Fesko, John. *Beyond Calvin: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in Early Modern Reformed Theology(1517-170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2.
- _____.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Standards.* Wheaton: Crossway, 2014.
- _____. *The Trinity and the Covenant of Redemption.* Fearn: Christian Focus Publication, 2016.
- Golding, Peter. *Covenant Theology.* Ross-shire: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04; 박동근 역, 『현대인을 위한 언약신학』. 경기도: 그나라, 2015.
- Horton, Michael. *Introducing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s, 2009.
- Letham, Robert. *The Westminster Assembly: Reading Its Theology in Historical Context.* Phillipsburg: P&R Publishing, 2009.
- Lillback, Peter A. *The Bindig of God.* Grand Rapids: Baker Book, 2001; 원종천 역, 『칼빈의 언약사상』. 서울: CLC, 2009.
- Muller, Richard. "Perkins' A Golden Chaine: Predestinarian System or Schematized Ordo Salutis?" *Sixteenth Century Journal* 9 (1978), 68-81.
- _____. *After Calvi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Theolog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한병수 역, 『칼빈 이후 개혁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_____. "Toward the Pactum salutis: locating the origins of a concept." *Mid-America Journal*, 18 (2007), 11-65.
- _____. *Christ and the Decree: Christology and Predestination in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Perkins*.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2009.
- _____. *Calvin and the Reformed Tradition: on the work not Christ and the order of salv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12.
- Perkins, William. *A Golden Chaine. Or the Description of Theologie. Containing the Order of the Causes of Salvation and Damnation*. trans. another. Edinburgh: Robert Waldegrave, 1592
- _____. *A Golden Chain. Or The Description of theologie. containing the order of the causes of Salvation and Damnation. According to Gods Word*. ed. Greg Fox Edinburgh: Puritan Reprint, 2010.
- Perkins, William. *A Golden Chaine: The Description of theologie. containing the order of the causes of Salvation and Damnation. According to Gods Word*. trans. Robert Hill. Cambridge: John Legat, 1600; 김지훈 역. 『황금 사슬: 신학의 개요』. 용인: 킹덤박스, 2016.
- Rutherford, Samuel. *The Covenant of Life Opened, or a Treatise of the Covenant of Grace: Containing Something of the Nature of the Covenant of Works, the Sovereignty of God, the Extent of the Death of Christ, the Nature and Properties of the Covenant of Grace, the Covenant of Suretyship or Redemption Between the Lord and the Sonne*. Edinburgh: Printed by Andro Anderson for Robert Brown, 1655.
- Vandrunen, David. *Divine Covenants and Moral Order: A Biblical Theology of Natural Law*. Grand Rapids: Eerdmans, 2014.
- Venema, Cornelis. *Christ and Covenant Theology: Essays on Election, Republication, and the Covenants*. Phillipsburg: P&R Publishing, 2017.
- Vos, Geerhardus. *Reformed Dogmatics*. vol. 2 trans. Richard B. Gaffin

- Jr. Grand Rapids: Lexham Press, 2015.
- _____. *Reformed Dogmatics*. vol. 3 trans. Richard B. Gaffin Jr. Grand Rapids: Lexham Press, 2015.
- _____. *Reformed Dogmatics*. vol. 4 trans. Richard B. Gaffin Jr. Grand Rapids: Lexham Press, 2015.
- Woolsey, Andrew. *Unity and Continuity in Covenantal Thought: a Study in the Reformed Tradition to the Westminster Assembly*.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 김성수.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7』. 부산: 개혁주의 학술원, 2013.
- 김재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의 언약사상.” 『한국개혁신학』 40 (2013), 40-82.
- 문정식. “존 칼빈과 윌리엄 퍼킨스의 언약사상 - 그 연속과 발전.” 철학박사학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4.
- 문병호.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신학과 신앙의 요체.” 『개혁논총』 27 (2013), 61 - 93.
- 안상혁. 『언약신학 쟁점으로 읽는다』. 수원: 영음사, 2016.
-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개혁논총』 26 (2013), 297-331.
- _____. “데이빗 딕슨의 구속언약의 특징과 그 영향.” 『개혁논총』 34 (2015), 63-112.
-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이상웅. 『박형룡신학과 개혁신학 탐구』. 서울: 솔로몬, 2019.
- 한병수. “언약의 통일성: 칼빈과 러더포드 중심으로.” 『개혁논총』 31 (2014), 79-121.

[Abstract]

The Covenant Theology of William Perkins and David Dickson in the Reformed Tradition

Jae Kwun Ryu

(Seongbuk Presbyterian Church, Associate Pastor, Systematic Theology)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venant theology by William Perkins and David Dickson within the Reformed tradition. For this object, in the first place, this paper examined the formative history of Reformed covenant theology from the early church to the times of Perkins and Dickson, and the present day. It was made clear that Reformed covenant theology became more concrete in the period of Perkins and Dickson through this study. In other words, through this history, this paper proved the rationale to study Perkins and Dickson's covenant theology. Secondly, this paper made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venant theology of the two previous theologians, which are the covenant of redemption, the christological system, and union with Christ. The Covenant of Redemption is by the agreement of Christ as to the execution and manner of God's decree as the Council of the Trinity, which is the covenant as God's decree in itself. The Christological system revealed the obedience (active, passive) to God's decrees through the threefold office (prophet, priest, king) within the union of the two natures, as the ministry of the Incarnate Christ, the Mediator. Union with Christ is the application of God's decree to the believer through

the Holy Spirit, and Christ imputes the righteousness to the believer in order to enjoy the grace of redemption. Therefore, this paper showed the richness of Reformed covenant theology by discussing the characteristics of Perkins and Dickson's covenant theology beyond the existing Calvin-centered researches.

Key Words: Covenant theology, Trinity, God's decree, Covenant of Redemption, Christological system, Union with Christ

